

‘e스포츠 신흥 메카’ 광주로 유학온 MZ세대들

체계적인 교육 받으려 광주지역 대학 찾는 사례 잇따라
전국 최대 전용경기장에 교육원, 전국대회 인프라 탄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광주시, e스포츠 지원센터 구축

“광주 이스포츠 리그에서 일할 날 꿈꿔요.” 국내 최대 규모 전용경기장부터 교육원, 전국대회 개최, 지역 대학 전문학과 등 이스포츠 산업 인프라를 탄탄히 갖춘 이스포츠 신흥 메카 광주로 MZ세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에서 내려와 올해 호남대 이스포츠산업 학과에 입학한 최환(21)씨. 그가 수도권대학을 마다하고 광주를 선택한 이유는 오로지 ‘이스포츠 매니지먼트’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직접 게임을 하는 것도 좋지만, 스포츠로서 이스포츠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광주는 대형 전용경기장에 교육원도 있고 대회도 자주 개최되는 등 이스포츠 생태계가 잘 구축돼 있어 전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최적지로 판단했죠.” 최씨의 말처럼 이 대학 이스포츠산업학과 학생들은 상당수가 외지에서 유학온 경우로, 이곳에서 4차 산업혁명의 흐름부터 이스포츠 전반에 대한 이론, 프로그래밍, 매니지먼트 등 미래산업으로서 이스포츠산업의 실무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이스포츠구단을 직접 운영하는 이스포츠 매니지먼트를 직업으로 꿈꾸는 학생부터 이스포츠 리그기획자, 리그사무국 운영, 심판, 프로리그 해설가, 에이전트, 게임기획자, 게임방송 크리에이터까지 각자 자신만의 꿈을 찾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온 정수민(20)씨는 “동아리

를 만들려고 하는데 단순한 게임동아리가 아니라 대회를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서 “이런 실무능력을 쌓아서 해설가나 매니지먼트, 기획자 등 이스포츠업계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학생들이 이스포츠의 꿈을 키우기 위해 광주를 찾고 있는 것은 광주시가 미래 전략산업으로 탄탄한 이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점이 크다. 조선이공대도 내년부터 이스포츠과를 신설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지역 대학들 또한 적극적으로 이스포츠 인재 양성에 동참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스포츠를 황금알을 낳는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지닌 미래 신산업으로 보고,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라 광주를 아시아 게임 허브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조선대 캠퍼스안에 구축한 국내 최대 1005석 규모의 주경기장을 갖춘 ‘광주 이스포츠경기장’을 활용해 계층별·세대별 대회, 대형 대회, 프로리그 등을 개최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광주 이스포츠교육원은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이스포츠 기초부터 매니지먼트, 방송제작 송출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 운영 중이다. 교육원은 상설 이스포츠 경기장을 구축한 조



e스포츠 신흥 메카로 떠오르고 있는 광주로 유학(遊學)은 경남 창원 출신 장수민(왼쪽)씨와 서울 출신 최환씨. 이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이스포츠 전용경기장부터 교육원, 전국대회 개최, 지역 대학 전문학과에 이르기까지 이스포츠산업 인프라를 탄탄히 갖춘 광주에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 이스포츠 업계 차세대 리더로 성공하는 것을 꿈꾸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선대와 이스포츠 산업과 관련된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갖춘 호남대가 주축이 돼 지역 다른 대학과의 협업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시는 내년 아시아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구축해 외국 선수·팀 대상 전지훈련 프로그램 개발, 이스포츠 구단 지원 등 민간 분야 연계, 지속적인 이스포츠 콘텐츠 생산 등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최씨 등은 “내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만큼 스포츠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다른 스포츠에 비해 아직 기반이 튼튼하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광주가 이스

츠에서 가장 앞선 도시가 된다면 저희가 졸업할 때쯤이면 야구단·축구단처럼 광주 연고 이스포츠 프로팀에서, 또는 광주리그를 기획하는 기획자로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국내 이스포츠산업은 매출액은 2018년 기준 국내 방송 분야 453억 원, 게임인 366억 원, 스트리밍 방송 255억 원이다. 전체 글로벌 산업 규모는 올해 4~30%씩 성장해 2020년 기준 11억 달러(1조3500억 원) 규모에 이른다. 서선욱 기자



이재영·이다영, 학폭 논란에서 그리스행까지

‘쌍둥이 자매’ 이재영과 이다영이 떠났다. 이들은 16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터키를 경유해 그리스로 향한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2021~2022시즌 V-리그 개막전이 열린 날이다. 그러나 국내 무대에서 실 곳이 없던 이들은 그리스 PAOK에서 새출발을 택했다. V-리그 최고 스타로 군림하던 이들의 운명이 바뀐 건 지난 2월이다. 한 포털사이트에 “현직 배구선수 학폭 피해자들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피해자들은 총 4명이고, 이 사람들 제외 더 있다”고 폭로하며 피해를 당한 21가지의 일들을 나열했다. 사실상 ‘슈퍼 스타’ 이재영, 이다영의 추락을 예고한 신호탄이었다. 논란이 일자 쌍둥이 자매는 곧바로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이재영은 “학창 시절 저의 잘못된 언행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낸 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했고, 이다영도 “학창시절 같이 땀 흘리며 운동한 동료들에게 어린 마음으로 힘든 기억과 상처를 갖도록 언행을 했다는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짧은 사과로 비난 여론을 잠재울 수는 없었다. 소속구단 흥국생명명은 2월15일 두 선수에게 무기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다. 같은 날 대한배구협회는 실무회의를 열어 학교 폭력 가해자들을 모든 국제대회 선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여자대표팀 주축 선수였던 이재영과 이다영은 태극마크도 반납했다. 파장은 계속됐다. 협회는 “2020 배구인의 밤 행사에서 이재영과 이다영의 어머니 김영희 씨가 받은 ‘장한 아버지상’의 수상도 취소했다. 결국 이들은 2020~2021시즌이 끝날 때까지 코트로 돌아오지 못했다. 시즌이 끝난 뒤 잠잠해 지는 듯했던 이들의 거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6월이다. 흥국생명명은 차기 시즌 선수 등록 마감일(6월30일)을 앞두고 이재영, 이다영을 소속팀 선수로 등록할 계획을 세웠다. 구단의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여론은 다시 들끓었다. 결국 흥국생명명은 박춘원 구단주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두 선수가 현재 선수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해 미등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흥국생명이 선수 등록을 포기하면서 이재영과 이다영은 자유계약(FA) 신분 이 됐다. ‘자유의 몸’이 됐지만, 국내 무대에서 이들을 받아들 수 있는 곳은 없었다. 실력은 보장되지만, 여론의 못매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두 선수를 굳이 영입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수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렸다. 이재영과 이다영이 그리스행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그 사이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통해 밝힌 입장은 더 큰 역풍을 불러왔다. 이다영은 “내가 칼을 대고 목에 찌른 건 없었던 부분이다. 그걸(칼) 들고 욕을 한 것 뿐”이라며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칼을 들었다는 설명은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아서게 됐다. 해외이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대한배구협회가 국내에서 물의를 일으킨 두 선수의 국제이적동의서(ITC) 발급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암초를 만났다. 이들은 국제배구연맹(FIVB)의 문을 두드렸고, 9월29일 FIVB 직권으로 ITC 발급이 승인되면서 마지막 결말들이 사라졌다.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 전국체전 2연패 ‘금빛 스트로크’

여고부 단체전 결승서 서울 무학여고 3-1 완파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이 금빛 스트로크를 날리며 전국체전 단체전 2연패를 달성했다.

순천여고 소프트테니스팀은 13일 오전, 경북 문경 국제정구장에서 열린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여고부 단체전 결승에서 서울 무학여고를 3:1로 완파했다. 김가현(3년)-김여빈(2년) 조가 1세트 복식 경기에서 출전한 순천여고는 첫경기 4:2로 내며 첫 세트를 따냈다. 이어 김가현이 2세트 단식마저 4:0 완승을 거두고 세트스코어 2:0으로 리드한 순천여고는 1학년 막내들이 출전한 3세트 복식 정현정-조경윤(이상 1년) 조가 1:4로 3세트를 내줬지만 신희선(2년)이 4세트 단식에서 4:1로 승리를 거두며 대회 2연패의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 제100회 체전에서 단체전, 단식, 복식 세부종별 모두를 석권한 순천여고는 올해 3학년 선수가 김가현 1명으로 객관적 전력만으로는 우승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인단식에서 신희선이 동메달을 획득했고, 7명이 뿔뿔 뿜은 단체전에서 금빛 스

트로크를 날리며 전국최강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김현선 지도자는 “대회 2연패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 우리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며 “항상 이성민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학교 선생님, 전남소프트테니스협회 임원님들께서 물심양면 지원해주셔서 좋은 결과가 나온 만큼 앞으로 선수들과 함께 더욱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전남체육은 대회 6일차를 맞은 이날, 복싱 남고부에서 금메달 2개를 추가로 수확했다. 라이트헤비급에 출전한 임형욱(전남기술과 학교 3년)은 결승에서 김민성(경북체육)을 5:0으로 완파했고, 박성현(전남기술과 학교 2년)은 헤비급 결승에서 신유승(계산공고)을 4:1로 누르고 금메달을 각각 목에 걸었다. 이외에도 육상 남고부 4x400m 계주에서 전남남달팀이, 불릴 여고부 마스터즈 박예은(목포공고)이 동메달을 획득하며 13일 19시 현재 전남선수단은 금메달 19개, 은메달 15개, 동메달 21개를 획득했다. 순천=김승호 기자

프라이부르크 정우영 3호골 새 홈구장 ‘첫 골’ 주인공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 중인 공격수 정우영(22)이 소속팀 프라이부르크의 새 홈구장에서 프라이부르크 소속으로 첫 골을 넣은 선수가 됐다. 정우영은 16일(한국시간)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치러진 라이프치히와의 2021~2022시즌 분데스리가 8라운드 홈 경기에 선발로 나와 0-1로 뒤지던 후반 19분 동점골을 터뜨렸다. 팀 동료인 빈첸조 그리포의 크로스를 정우영이 헤더로 마무리했다. 지난 8월28일 슈투트가르트와 3라운드 멀티골 이후 5경기 만에 터진 시즌 3호골이다. 또 프라이부르크의 새 홈구장인 유로파-파크 슈타디온에서 나온 프라이부르크의 1호골 주인공에도 이름을 올렸다. 최근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의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3, 4차전을 치르고 돌아온 정우영은 정규리그 8경기(7경기 선발)에 모두 출장하고 있다. 정우영의 동점골로 1-1 무승부를 거둔 프라이부르크는 개막 후 8경기 무패(4승4무·승점 16) 행진을 달리며 리그 4위에 올랐다. 라이프치히의 리그 8위(승점 11)다. 뉴스

‘7번’ 손흥민, 한국관광 7개 매력 전 세계 알린다

문체부·한국관광공사, ‘내가 생각하는 한국, 7가지 매력’ 손 선수 특징과 연계해 표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출연한 한국관광 해외 광고 영상은 18일부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1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이번 광고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 7가지 매력’을 손 선수 특징과 연계해 표현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떠한가?(This is my KOREA, What's yours?)”라는 주제로 열정적이고(Passionate), 빠르고(Fast), 독창적이고(Creative), 스마트하며(Smart), 재미있고(Fun), 사랑스럽고(Lovable), 환상적인(Spectacular) 한국의 7가지 매력을 축구선수로서의 손흥민의 특징과 연계했다. 주요 광고영상(1분20초) 외에도 손 선수를 직접 인터뷰한 형식의 ‘인터뷰 광고’(3분30초)와 광고 뒷이야기(메이킹 필름) 등 추가 2편은 일주일 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광고 개시를 기념해 손 선수의



영상 콘텐츠들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비롯해 손흥민 개인 누리소통망 등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다. 특히 이번 광고 개시를 기념해 손 선수의 활동 무대인 영국에서는 손 선수 대형 광고로 꾸민 2층 버스가 달린다. 한국관광공사 누리집에서는 손 선수가 추천하는 관광지도 소개할 예정이다. 뉴스